

KOTRA 「코로나19 비상대책반」 일일 동향 보고

- 8.14(금), 코로나19 비상대책반 -

서남아지역본부

□ 현지 정부 대응 정책 동향

국가 (무역관)	내용				
인도 (뉴델리)	□ 현황 (총 2,461,190명 확진, 64,553명 신규확진, 48,040명 사망)				
	연번	지역	누적확진자	신규확진자	사망
	1	안다만&니코바르제도	2037	137	22
	2	안드라프라데시	264142	9996	2378
	3	아루나찰프라데시	2512	82	4
	4	아삼	71795	2796	169
	5	비하르	94193	3872	426
	6	찬디가르	1842	91	27
	7	차티스가르	13937	439	114
	8	다드라나گار하벨리	1752	56	2
	9	델리	149460	956	4167
	10	고아	10494	570	91
	11	구자라트	75408	1090	2731
	12	하리아나	44817	793	511
	13	히마찰프라데시	3816	180	19
	14	잠무&카슈미르	26949	536	509
	15	자르칸드	20881	1138	209
	16	카르나타카	203200	6706	3613
	17	케랄라	39708	1564	129
	18	라다크	1849	38	9
	19	마드야프라데시	42618	1014	1065
	20	마하라슈트라	560126	11813	19063
	21	마니푸르	4112	130	13
	22	미조람	649	0	0
	23	메갈라야	1193	14	6
	24	나갈랜드	3168	50	8
	25	오디샤	52653	1981	314
	26	푸두체리	6680	299	102
	27	편잡	27936	1027	706
	28	라자스탄	57414	1314	833
	29	시킴	931	1	1
	30	타밀나두	320355	5835	5397
	31	텔랑가나	88396	1921	674
	32	트리푸라	6767	164	46
	33	우타라칸드	11302	416	143
	34	우타르프라데시	140775	4537	2280
	35	웨스트벵갈	107323	2997	2259
	-	총계	2461190	64553	48040
*인도보건복지부 통계 8월 14일 오전 8시 기준					
*음영처리된 지역은 상위 1-10위에 포함되며, 다수 무역관 인근 및 주재지역					

국가 (무역관)	내용
	<p>○ 인도 코로나19, 정치권 감염과 더불어 폭발적 확산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일(14일) 인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6만4천5백53명으로, 16일 연속 일일 신규확진자 5만 명을 넘어서며 빠른 확산세 - 더불어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, 프라나브 무케르지 전직 대통령 등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및 州정부 장·차관, 고위급 각료 등 정치권에서의 확산세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프라나브 무케르지 前 대통령의 경우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짐 -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소 12명의 州정부 장관 및 의원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으며, 그 중 의원 2명은 사망한 것으로 발표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Livemint https://bit.ly/3aAmyS5 08.14 *Bloomberg https://bloom.bg/2Cw11xe 08.13</p> <p>○ 마하라슈트라州정부, 국제선 탑승객 대상 자가격리 지침 일부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3일(목) 마하라슈트라 정부는 일부 국제선 탑승객에 대해 출발 72시간 전 온라인으로 건강상태확인서(self-declaration form)를 제출할 경우 도착 후 시설 의무격리를 면제하는 개정안 발표 * 기존 국제선 탑승객 대상 규정: 7일간의 시설격리와 7일간의 자가격리 - 모든 국내선 탑승객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하며, 7일 미만 머무르는 경우 왕복 탑승권을 제시하여 의무격리 면제 가능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Livemint https://bit.ly/2PNRpAO 08.14</p> <p>○ 아삼州정부, 14일(목) 신규 봉쇄조치 완화지침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일(14일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아삼 정부는 오는 16일(일)부터 31일(월)까지 봉쇄조치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며, 일부 기존 지침을 준수하되 지역間 차량 이동은 정원의 50% 미만 탑승한 경우에 한해 허용됨 - 버스 및 대중교통의 경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하에 정원의 50% 미만 탑승 시 운영 허용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Livemint https://bit.ly/3kFopcV 08.14</p>

□ 주재국 현지기업 동향

국가 (무역관)	내용
인도 (뉴델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워크(WeWork) 인도법인, 고객 유치 위해 신규 프로모션 진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3일(목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위워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3개월간 금액의 50%를 할인하고, 회원에 한해 전 세계 800여 개 센터 무료 이용 등의 프로모션 개시 - 현재 위워크 인도법인은 6개 지역에 34개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, 지난 6월 위워크 글로벌(WeWork Global)로부터 1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음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Livemint https://bit.ly/2XWf7iM 08.14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마존 인도법인, 온라인 의약품 처방 및 판매 서비스 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3일(목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아마존 인도법인은 지역별 봉쇄 조치 및 비대면 소비 선호도 상승 등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단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'Amazon Pharmacy' 서비스 출시 - 해당 플랫폼은 벵갈루루에서 시범 운영되며, 추후 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증가하는 비대면 진료 수요 충족 목표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Livemint https://bit.ly/3klkoUU 08.13</p>

□ 현지 진출 국내기업 동향

국가 (무역관)	내용
인도 (뉴델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아차 인도법인, 내년 전략모델로 '쏘렌토(Sorento)' 출시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3일(목) 관련 업계에 따르면, 기아차는 내년 인도전략모델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(SUV) '쏘렌토'를 출시하여 자사 SUV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- 현지 업계는 출시 시점을 내년인 2021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으며, 해당 신차 출시를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 목표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GaadiWaadi https://bit.ly/33YPwcT 08.13</p>

국가 (무역관)	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리온, 인도 생산공장 준공 마무리 단계 돌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일(14일) 관련 업계에 따르면, 오리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달간 중단됐던 라자스탄주 소재 인도공장 건립을 봉쇄조치 완화 등에 따라 재개하면서 근시일내 완공 예상 - 오리온은 해당 생산공장 가동을 통해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, 금년 4분기부터 생산을 가동하여 향후 시장 내 거점 확대 목표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더벨 https://bit.ly/3gZYs5A 08.14</p>

□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

국가 (무역관)	내용
인도 (벵갈루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도 디지털 결제, 2022 회계연도까지 37% 성장률 기록 전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레드시어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, 인도의 디지털 결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성장하여 2022 회계연도까지 연간 37% 성장률을 기록해 4,067조 루피(약 54조 달러)에 달할 전망. - 또한 모바일 기반 디지털 결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2025 회계연도까지 연간 27% 성장률을 기록, 7,092조 루피(약 95조 달러)에 이를 전망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 The Economic Times, 8.13.</p>
인도 (뉴델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, 식품 가격 상승으로 6.93% 기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3일(목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7월 기준 인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.93%를 기록하였으며, 소매물가상승률 또한 6월 기준 6.23%로, 전달 6.09%에 비해 상승 - 당초 중앙은행(RBI)이 설정한 소매물가상승률 기준치는 6%였으나, 육류 및 어패류와 향신료의 소매물가상승률이 각각 18.81%, 13.27%로 상승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Indian Express https://bit.ly/3ap0MjN 08.13</p>

국가 (무역관)	내용
	<p>○ 인도정부, 중국 영향력 견제 위해 몰디브에 5억 달러 투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일(14일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인도정부는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몰디브에 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(GMCP)를 포함한 다수의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 계획 발표 - 몰디브는 동 자금을 4개의 섬을 잇는 6.7km의 다리 건설 등의 인프라 설립 등에 사용할 것이며, 단일 프로젝트 기준 몰디브 사상 가장 큰 규모에 해당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Times of India https://bit.ly/3iCNOLu 08.14</p>